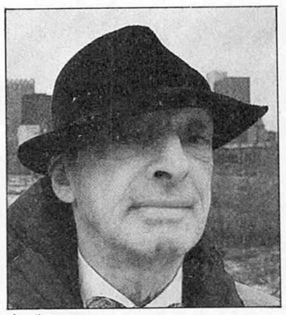
새봄 맞아 문제작 풍성한 英美 출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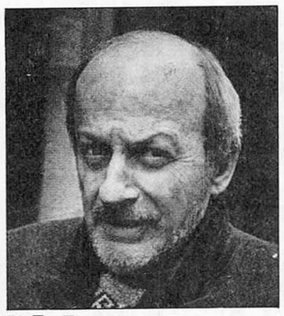
솔 벨로, 골딩 등 유명작가들 줄이어 新作 발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英美중견작가들이 최근들어 연이어 신작을 발표, 새봄을 맞은 출판계와 서점가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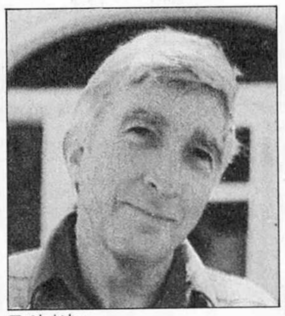
이번에 신작소설 혹은 자서전 등을 발표한 작가들은, 1976년「훔볼트의 선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솔 벨로, 1983년「파리대왕」으로 역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던 윌리엄 골딩을 비롯, E.L. 독토로, 앤소니 버제스, 존 업다이크 등. 이들 작가들은 문자 그대로 베스트셀러의 보증수표와 같은 인물들이어서, 올봄의 영미 출판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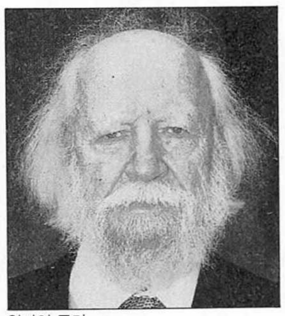
솔 벨로



E.L 독토로



존 업다이크



윌리엄 골딩

솔 벨로 新作… '페이퍼 백'으로 찍어내 화제

87년 6월「죽음보다 더한 失戀」*(More Die of Heartbreak)*을 내놓아 높은 문학성과 대중적 인기의 건재를 과시했던 솔 벨로가 1년 반만에 내놓은 신작소설「도둑질」*(A Theft)*은, 작가가 이제까지 즐겨 다뤄왔던 '현대인의 희극적 고통'을 또다시 그리면서도 전혀 새로운 접근과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이 작품은 유명 패션誌의 간부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클라라 벨데라는 여성이 가장 아끼던 에메랄드반지를 분실하면서, 네번씩이나 파경을 맞았던 자신의 결혼생활, 하나 뿐인 딸 루시, 20년 넘도록 연애관계를 유지해오면서도 끝내 결혼만은 하지 않았던 남자친구 레글러와의 관계를 비롯, 자기 주변의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과정을 코믹하면서도 씁쓸하게 그려나가고 있다.

「뉴욕 타임스 북리뷰」 최근호 서평에서 프린스턴대 교수 조이스 캐롤 오츠는 "우화같은 간결함을 지닌 작품, 가슴을 저미지만 대단히 우스운 이야기"라고 이 작품을 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솔 벨로의 신작소설이 출간되자마자 세인들의 관심과 입방아에 오른 것은 정작 작품성 때문보다는 페이퍼백으로 첫선을 보였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구미의 출판계에서는 신작을 우선 하드커버(양장본)로 출판한 다음 몇개월 뒤에 염가판매용인 페이퍼백으로 찍어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물론 최근들어서는 이른바 오리지널 페이퍼백의 출간이 늘고 있지만, 연애소설이나 무명작가들의 작품이면 몰라도 노벨상 수상작가의 작품인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다. 솔 벨로가 이처럼 파격적인 행동을 취하게 됐던 원인은,「도둑질」의 출판을 기꺼이 맡고 나서겠다는 출판사가 없었다는데 있었다. 이 작품의 원고를 검토했던 두 출판사 모두 저자가 내용을 대폭 잘라낸다면 출판을 고려하겠다는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태도에 크게 화가 난 작가가 페이퍼백 출간이란 전례없는 도박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작가와 출판사들간의 신경전에서 정작 어부지리를 얻은 쪽은 독자들. 세계적인 작가의 신간소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독자들은 마냥 즐거워하는 표정들이라고.

새로운 '소년영웅'의 등장

솔 벨로의「도둑질」과 함께 올봄 최대의 화제작으로 떠오르고 있는 작품은 E.L. 독토로의「빌리 배스게이트」*(Billy Bathgate)*이다.

E.L. 독토로는「래그타임」*(Ragtime)*이란 작품으로 국내 독자들과 친숙한데, 전형적인 미국적 활기를 재치있는 감각과 속도감있는 스토리전개로 그려내는 작가로서 대중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작품은 1935년 뉴욕항을 배경으로 빌리 배스게이트라는 15세 소년이 갱단조직에 들어가 겪는 모험을 긴박감 넘치게 그린 범죄소설로,「뉴스위크」 최근호는 "독토로가 이제까지 발표해온 모든 작품들은 바로 이 작품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을 정도. 일단 읽기 시작하면 밤을 새워 내쳐 읽도록 만드는 흥미진진한 소설이라는 것이 평론가들과 독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인데, 혹자는 허클베리 핀과 톰 소여를 합친 새로운 소년영웅 빌리 배스게이트가 탄생됐다고 흥분하기도 한다.

이 작품은 도시의 어두운 뒷편에서 벌어지는 잔인한 살인사건들과 피비린내나는 세력다툼 속에 30년대식 낭만을 교묘하게 짜넣음으로써 암흑가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과 경외감을 더욱 자극한다. 베스트셀러의 지름길이라는 '폭력'과 '性' 두 주제를 적절하게 배합하면서도 높은 문학성까지 지니고 있어, 89년 최대의 인기작으로 부상할 것이 틀림없는 작품이다.

자서전 펴낸 업다이크

그런가하면 존 업다이크의 자서전「자의식」*(Self-Consciousness)* 역시 3월초 출간되자마자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 다이크는「달려라 토끼」「부부들」 등의 작품들을 통해 소시민의 무사안일과 고독감, 신경질적인 순응을 리얼하게 묘파해온 작가. 그는 지난 86년과 88년「로저式 성서번역」(국내에서는「이브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됐다)「에스」를 내놓은데 이어 이번에는 자서전을 상재함으로써 80년대 후반들어 더욱 성숙해진 자신의 문학세계와 창작열을 과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독자들이 기대하듯 비화를 폭로하여 문단 안팎에 센세이션을 일으킬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펜실베이니아주 소읍에서 성장한 소년이 작가의 꿈을 키워나가며 결국에는 유명작가로 성장하는 과정,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문학적 영향을 6편의 비연속적인 에세이들을 통해 잔잔하게 고백하고 있어 감동적이다.

영국작단도 활기

위 세 작가들이 모두 오늘날 미국문단을 주도하는 대표작가들이라면, 윌리엄 골딩과 앤소니 버제스는 영국문단을 이끄는 거장들이다.

항해 도중 난파당한 일단의 소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관계를 그린「파리대왕」에서 보여주었듯이, 윌리엄 골딩은 바다 및 항해라는 주제를 즐겨 다루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신작소설「*Fire Down Below*」역시 19세기를 배경으로 하여 영국에서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까지 거의 일년간에 걸친 해상여행을 흥미롭게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통과의식」*(Rites of Passage*, 80년)「접근」*(Close Quarters*, 87년)과 함께 3부작을 이루고 있는데, 선장 에드먼드 탈보트를 중심인물로 하면서 '그가' 항해 도중 만나는 갖가지 사람들을 통해 파도와 시간 속에서 정처없이 표류하는 인간의 모습을 묘파해 내고 있다.

제임스 조이스에 버금가는 실험적 언어구사로 유명한 작가 버제스가 올봄 발표한 작품은「마법의 칼」*(Any Old Iron)*. 버제스의 대표작「태엽장치가 된 오렌지」*(A Clockwork Orange*, 국내에서는「조직과 인간」이란 제명으로 번역출간)이 모더니즘의 전형을 구현한 획기적인 작품이라면,「마법의 칼」은 아더왕의 칼 엑스컬리버에 얽힌 중세의 전설을 빌어 20세기 현대인의 욕망을 풍자적으로 이야기한다. 낭만주의적이면서도 민족주의적인 웨일즈주 출신의 존스가문이 1,2차 세계대전, 스페인내전, 이스라엘 건국전쟁, 웨일즈 민족주의운동을 거치면서 보여주는 명예욕의 갖가지 모습들을 통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문제를 탐구하려는 것이 바로 저자의 의도이다. 저자 버제스는 '절대적인 것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야말로 인간이 지닌 가장 근본적인 욕망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낭만주의·이상주의·민족주의 또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위와 같은 욕망이 좌절될 때 폭력과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절대적인 정의와 진리, 美의 상징인 전설의 검 엑스컬리버를 좇는 존스 집안 사람들의 신념을 보여줌으로써, 역사 속에서 개인은 과연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다. 읽는 이의 지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수준높은 작품이기는 하지만, 일반 독자들로서는 작가가 쏟아놓는 온갖 지식을 따라가기에 다소 힘에 벅찰 것이라는 것이 평론가들의 평이기도 하다.